

협(協)

김민재

·
·
·

내가 나의 목소리를 내었을 때에는
그것은 다만
하나의 소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의 목소리를 내었을 때,
그것은 곧 나의 소리와 섞여
음악이 되었습니다.

그와 나의 파형이 섞인 것처럼
우리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노래를 만들어 봐요.

당신이 었은 소리가
불협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만의 것이니까요.

·
·
·

협화음정과 불협화음정

‘첫인상’ 말 그대로 그 사람을 처음 볼 때 느껴지는 이미지이다. ‘사람은 0.3 초라는 짧은 시간에도 호감, 비호감으로 첫인상을 판단한다.’라는 말이 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첫인상에 민감하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이겠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음악을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 일정 부분만 듣고 그게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는가? 물론 일정 부분만 들어도 귀가 편하게 듣는 화성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도, 미, 솔’ 같은 장 3 화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음악만 존재했다면 우리는 아마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화성적으로 완전하다고 할 수 있는 ‘성가대 음악’만 듣고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개개인이 만드는 관계도 아주 지엽적일 것이고, 발전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불협을 수용하고 이해했기 때문에 불협을 아름답게 활용한 쇼팽의 곡 ‘에튀드 Op.25 No.5’ 가 만들어 질 수 있었고, 장르 ‘재즈’가 만들어 질 수 있었다. 우리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이다. ‘협’은 ‘협’인 대로, ‘불협’은 ‘불협’ 인대로 서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좋은 것을 찾고, 아름다움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서로 보완하고 노력한다면, 이제껏 세상에 없었던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그런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



단성음악과 다성음악

화성이나 대위법적인 요소 없이 하나의 성부로 이루어진 음악을 ‘단성음악’이라고 한다. 그와 대비되게 독립적인 멜로디가 둘 이상의 라인에 동시에 구성되는 어우러지는 음악을 ‘다성음악’이라고 한다. 초기의 음악은 단성음악이었지만, 사람들은 다채로움을 원했고 변화와 조화를 원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두 개 이상의 멜로디를 섞는 방법을 고안했고, 다성음악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를 기반으로 많은 명곡이 만들어질 수 있었고 단성음악이 가진 한계를 넘을 수 있었다.

우리의 관계 또한 같다고 생각한다. 혼자일 때에는 일개 개인에 불과하지만, 타인과 함께 있음으로써 다채로워질 수 있고, 개개인이 가진 한계를 넘을 수 있다. 하나의 목소리보다는 두개의 목소리가 합쳐짐에 있어 더 큰 울림을 가질 수 있다. 더 좋은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보완할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서로의 입장을 섞으며 음악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만남에서 추구해야 할 지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자신에게 편한 사람만의 관계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뜻이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또한 맺는 것이, 더 많은 입장을 볼 수 있고 견해를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나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좋다.

과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단성음악에서 조화를 찾는 과정에서 다성음악을 발견하였고 더 음악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과 같이, 개인이 홀로 조화를 찾다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을 찾아내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우리는 모두 그런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

우리만의 음악

단성음악보다는 다성음악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고, 홀로 보다는 함께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기에 관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견해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서로에게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보컬을 전공하는 친구가 아무런 사전에 계산 없이 바로 화음을 쌓아 코러스를 넣는 것이 신기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본 경험이 있는데, 그냥 느낌이 가는 대로 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다. 물론 처음부터 잘하진 않았겠지만 많은 연습을 토대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와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이다. 처음에는 누구나 서툴겠지만, 우리 모두는 많은 연습과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관계를 만드는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음악을 만드는 행위,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가며 조화를 찾는 행위, 그것은 우리 모두가 관계 속에서 추구해야 할 지점이다.

어떤 음악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우리만의 것이니까.

·
·
·

참고자료

<https://wordrow.kr/%EC%9D%98%EB%AF%B8/%EB%8B%A8%EC%84%B1%20%EC%9D%8C%EC%95%85/>

[https://namu.wiki/w/%EA%BD%83\(%EA%B9%80%EC%B6%98%EC%88%98\)](https://namu.wiki/w/%EA%BD%83(%EA%B9%80%EC%B6%98%EC%88%98))

<https://ko.wikipedia.org/wiki/%EB%8B%A4%EC%84%B1%EC%9D%8C%EC%95%85>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aroma871&logNo=221072331258>

<https://wordrow.kr/%EC%9D%98%EB%AF%B8/%EB%8B%A8%EC%84%B1%20%EC%9D%8C%EC%95%85/>

<https://ko.wikipedia.org/wiki/%EB%8B%A4%EC%84%B1%EC%9D%8C%EC%95%85>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aroma871&logNo=221072331258>